

메시지 5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경: 롬 8:9-11, 28-29

- 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II. 로마서 8장은 교리에 대한 장이 아니라, 체험에 대한 장이다. 이 장은 삼일성의 교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체험 가운데 계신 삼일성에 대해 말한다.
- III.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2, 6, 10-11, 26-29절.
- IV.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은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다.
- V.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롬 8:9상.
 - A. 로마서 8장은 아버지(15절)와 아들(3, 29, 32절)과 영(9, 11, 13-14, 16, 23, 26절)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인 우리 안으로 어떻게 분배하시는지(2, 6, 10-11절)를 밝혀 준다. 이러한 분배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어(14-15, 19, 23, 29, 17절)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12:4-5).
 - B.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고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다.
 - C.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삼일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에서부터(롬 8:10) 우리 생각으로 대표되는 우리 혼 안으로(6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생명을 주실 것이다(11절).
- VI.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롬 8:9하.
 - A.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그분의 영께 달린 문제임을 보여 준다.
 - B.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께 속할 길이 없을 것이다.
 - C.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고후 3:17),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딤후 4:22) 우리와 한 영이시다(고전 6:17).
 - D.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이시다.
 - E. 바울은 이 명칭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 F.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과 그 영과 그리스도가 모두 언급되어 있다.
 - G. 우리 안에는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곧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께서 계신다 — 요 4:24, 고후 3:17, 롬 8:11.

VII.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 롬 8:10.

- A.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가 로마서에서 핵심 요점이다.
 - 1.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계신다.
 - 2. 로마서 4장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 3.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 4.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 B.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안의 우리 영은 죽어 있었고, 밖의 우리 몸은 살아 있었다.
- C.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밖의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안의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다.
- D.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우리 몸의 죽어 있는 상태가 드러난다.
- E.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의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생명을 가져오신다. 그러나 사탄은 죄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으면서 죽음을 가져온다.
- F.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과 함께 사람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었고 무능하게 되었다.
 - 1. 비록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셨지만(롬 8:3), 이 죄는 타락한 사람의 몸에서 근절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 2. 그러므로 우리 몸은 여전히 죽어 있다.
- G.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사람의 타락한 몸과 대조되는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
- H. 영이 의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 I. 우리의 영은 거듭나 살아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 1.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신성한 생명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하셨다.
 - 2. 따라서 이 두 영은 한 영이 되었다 — 고전 6:17.
- J.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의를 받았다. 이 의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롬 8:10.
 - 1. 이 의는 생명을 가져온다 — 롬 5:18, 21.
 - 2.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이다.

VIII.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롬 8:11.

- A. 이 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전체,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본다.
- B.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둘레까지 곧 우리 온 존재에까지 이른다.
- C.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신성한 치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가리킨다.
- D.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 죽어 가는 몸에 생명을 주시어, 이 몸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활기 있게 하신다.